

# 아동성학대의 실태와 관련변인

—지방대도시 청년기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ild sexual abuse and related variables  
—focused on experiences of female adolescents in metropolitan areas—

계명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유가효  
대구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남정림

Dept. of Home Management, Keimyung Univ.

Prof. : Yoo, Ka Hyo

Dept. of Home Management, Daegu Univ.

Instructor : Nam, Jeong Lim

##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Using a nonclinical sample of 566 female students, this study examines the frequency and the severity of child sexual abuse in Taegu area. It also analyzes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probability of experiencing both contact and noncontact forms of the abuse. The results show that children from low socio-economic status tend to experience severe types of contact abuse while children from higher socio-economic status are likely to be exposed to noncontact abuse. The growing place in the childhood also affects the victimization to noncontact and contact abuse differently. The absence of the biological parents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the occurrence of contact abuse, but have no impact on the noncontact abuse. However, the closeness of the family members and frequent communication reduce the rates of both contact and noncontact abuse substantially.

## I. 문제제기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시작되었으나 학술적인 연구들은 주로 신체적 학대에 치중되어 이루어져 왔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는 최근 성폭행사건이 빈발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공개되면서 한국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성학대는 많은 혼동과 신화에 둘러 쌓인 채 지금까지 학술적인 연구로부터 외면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도도 최저수준이다. 성인들간의 성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토의조차 수용되지 않는 한국의 문화 풍토에서 가족윤리에 위배되는 근친상간을 포함하는 아동의 성학대는 논의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성적인 사회적 금기를 포함하는 만큼 거부감을 야기시키기 쉽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장애요인 이외에도 아동의 성학대는 비밀, 죄책감, 수치감 등의 감정이 지배적으로 표출되는 위기상황이므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피해아동이나 그 부모들의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

아동의 성학대는 일반적인 성폭행의 한 유형으로 취급되거나 아동학대를 다룬 연구들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을 뿐 이 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종복, 1991; 정동철, 1990). 그러나 성폭행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도 아동의 성학대가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역, 연령에 상관없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229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1989)에 의하면 6.5%의 여성이 아동기에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동철, 1990)에서는 20%를 넘는 수가 다양한 형태의 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성폭력 상담소에 면담을 신청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행한 심층면접(1992)에서도 25% 이상이 15세 미만에 성폭력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서구사회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적 발달에 장애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의 해체, 청소년 비행, 자살, 타살 등과 같은 범죄로도 연결된다.

아동의 성학대가 우리 나라에서도 널리 확산되어 있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성학대의 실태, 개념 및 원인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아동에 대한 성학대에 관한 연구는 아동복지관련기관이나 성폭행상담소에서 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그 실태를 부분적으로 파악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접수되거나 도움을 요청한 아동들만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한 반면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학대 경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잠재된 성학대 실태를 파악한다. 본 연구결과는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지만 성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포함하므로 일반화 및 객관화가 용이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몇 편 안되는 연구들이 성학대의 실태 및 현황고발에 치우쳐 체계적인 개념화와 원인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실정인데 본 연구는 아동의 성학대를 야기시키는데 기여하는 가족적, 사회환경들을 분석한다. 또한 지금까지 성학대 실태조사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정동철, 1990)들이 주로 서울근교에 거주하는 여성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데 비해 본 연구는 지방대도시인 대구지역에서의 성학대 경험을 파악한다.

서구에서의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에 대한 성학대는 여아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남아에게도 성적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아에 대한 성학대가 남아의 경우보다 그 비율이 훨씬 높고 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아가 경험하는 성학대에 초점을 둔다. 여아가 경험하는 성학대의 과정이나 결과가 남아의 그것과는 다를 수가 있으므로 두개의 현상을 인위적으로 하나로 간주하기보다는 이를 구분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도나 정도 면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여아에 대한 성학대만을 다룬다.

## II. 이론적 배경

### 1. 아동에 대한 성학대의 개념

무엇이 아동 성학대인가에 대해서는 사후조치적이거나 조작적인 차원에서는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정의는 부재한 상태이다. Schechter and Roberge (1976)는 성적 학대를 의존적이고 발달단계면에서 미성숙한 아동을 스스로 동의 능력이 없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성적 활동이나 가족간의 역할 수행면에서 금기시되어온 성적 활동에 개입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미국의 전국 아동학대 및 방임 센터는 성적 학대를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거나 감정적으로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어린 시절의 성적 경험으로서, 요컨대 어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Saphira(1987)는 아동의 성학대를 16세 이하의 아동에게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가하는 것으로 몸의 일부를 성적으로 만지는 것, 성기노출, 음란비디오 보여주기, 나체가 되기를 강요하는 것, 어른의 만족을 위한 자위행위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한다.

영국의 성학대 아동을 위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정의를 종합해서 제시하는 정의를 보면 성적으로 성숙한 성인이 자유의지로 동의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고의거나 또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의무의 소홀로, 성적행위에 참여를 허용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의는 어떤 형태의 강요가 사용되었는지, 성기 혹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아동에 의해서 먼저 시작되었는지, 아동에게 어떤 유해한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러한 개념정의를 세 가지 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모든 어린이가 같은 행위를 성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런 행위가 자신에게 해롭거나 착취적이라고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성적 행위”로 규정지을지가 문제이다. 예를 들면 아동이 성적인 것으로 인지하지 않는 성기노출도 학대로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가해자의 의도, 즉 성인의 성적인 만족

추구가 성학대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아동이 자신의 경험이 성폭행이라는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른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그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는 성적 학대에 해당된다.

둘째, 가해자와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달 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연구들은 16세나 18세를 자율적으로 동의가 가능한 연령으로 보고 이를 아동학대의 상한선으로 규정한다. 가해자의 연령이 피해자의 연령보다 5세 이상 많은 경우에도 학대적인 관계로 간주하는데 이는 아동과 성인사이에 존재하는 권력관계 때문에 아동이 거절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다. 한편 Schechter와 Roberge (1976)는 연령보다는 학대관계에서 권력과 성장의 단계가 더 정확한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아동이 성적 학대의 의미나 영향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행위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학대는 성립된다. 모든 종류의 학대는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간에 강요가 포함되는데 아동의 성인에 대한 의존적인 관계는 거절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세째, 아동에 대한 성학대는 여성에 대한 강간과 공통점을 지니는데 양자가 모두 권력 차이를 악용한 경우이다. 다른 종류의 학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동의 성적 학대도 직접적인 육체적 힘이나 피해자의 의존성을 이용한 비직접적인 형태의 권력남용이 핵심을 이룬다. 아동들은 구조적으로 어른에 동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들간에 권력과 의존의 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명백하고 보편적이다. 따라서 이들간에 상관관계는 언제나 권력에 기반을 둔 착취적인 성격을 띠며 이와 비슷한 권력과 의존의 구조에서 파생되는 성적 학대는 고용주와 고용자 사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아동 성학대의 정의와 관련해서 학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중의 하나는 성기노출이나 성적 언어의 사용 같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성적 행위를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행위와 함께 개념정의에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비접촉성학대를 아동 성학대 정의에 포함해왔다. 첫째, 성기노출같은 가벼운 추행이라도 타인에게 충격이나 공포심을 자아내

려는 의도나 노출자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행해진다는 점에서 그 근본적인 동기는 심각한 학대행위와 마찬가지로이다. 둘째, 아버지, 형제, 교사와 같이 사회규범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성적인 제안이나 개입을 당했을 때 비접촉성 학대도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 한편으로 연구자들은 비접촉성 성학대는 장기적인 영향이 적고 아동의 몸을 직접적으로 범하는 접촉성 성학대 행위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Peters, 1984).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본 연구는 비접촉성 성학대를 아동학대의 일부로 간주하되 접촉성 학대와 비접촉성 학대를 분석적 차원에서 구분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비접촉성 학대를 야기시키는 상황들과 요인들은 접촉성 학대의 그것들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비접촉성 성학대는 만 16세 이전에 누군가가 고의로 성적 자극을 주는 놀이나 말을 하거나, 성기를 일부러 노출시키거나, 음란서적, 비디오, 사진 등의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로 정의되었다. 접촉성 성학대는 만 16세 이전에 누군가가 응답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1) 가슴, 엉덩이, 음부를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켜 접촉하는 행위, (2) 성적인 키스나 애무, (3) 남성의 성기나 몸을 성적으로 자극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구강, 항문, 질에 대한 성교를 포함하는 행위로 개념화되었다.

또 다른 논란은 동년배집단을 성적 학대의 가해자로 개념정의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제외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어떤 연구자들은 성학대의 개념을 어린 혹은 나이가 많은 상대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성적 경험만을 의미한다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나이가 비슷한 아동으로부터 당하는 성적 학대는 힘이나 강제가 사용될 경우에도 정신적 충격이 약화되므로 성인이나 연장자와의 상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주로 통념에 근거한 것으로 동년배들도 심각한 학대적, 폭력적, 강요된 성행위를 자행할 수 있다는 것이 피해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Women's Research Center, 1989). 최근 연구자들은 원하지 않거나 강요된 성적 행위일 경우 그것

이 비슷한 나이 또래 아동들 간에 일어났더라도 아동 성학대의 일부로 간주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친오빠, 친직오빠, 친구 등의 비슷한 연령 대에 있는 남아에 의한 여아의 학대가 많을 것임을 감안하여 그 행위가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어났을 경우 학대로 규정한다. 남아나 청소년들은 여아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인여성들도 집단적으로 성폭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남녀 간의 권력의 불균형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 아동 성학대의 과정

아동의 성학대는 대개 점진적으로 전개되며 갈수록 성적 개입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피해아동과 가해자 간에 관계가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경우에는 아동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벼운 추행이나 비접촉적인 학대 행위에서 더 심각한 행위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 피해아동이 겪는 학대의 일반적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아동학대 특유의 문제점들이 이것을 통해 잘 드러난다. 대부분의 아동성학대는 첫째로 예행단계를 거치는데 가해자가 아동에게 접근하여 아동을 성적 학대로 유도하며 그런 행위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이에 해당한다. 가해자는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수도 있고 강제의 한 유형으로 위장수법을 쓰기도 한다. 어린 시절 성학대를 경험한 여성들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한국여성개발원, 1989) 많은 경우 가해자들이 신체적 폭력과 물리적 힘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위장수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놀이, 벌, 성교육, 애정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행위가 정말로 성적 학대이며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인지에 대해서 아동들에게 혼동을 야기시키므로 그들의 현실감각을 상실하게 한다. 또한 외부인들에 의해서 그 학대가 발견되는 것을 막고 피해아동에게 진실을 교묘하게 숨기는 작용을 하므로 직접적인 폭행의 사용만큼 아동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먼저 성적 학대를 놀이로 위장한 경우를 보면 학대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저항이 어렵고 그것이 외부인들에게

노출되었을 때 아동의 설명력, 어휘력의 부족 등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사실을 부인하기가 쉽다. 빌로 위장하는 경우는 놀이보다 육체적 힘이나 폭력사용이 많은 것이 일반적 특징인데 가해자는 피해아동이 나쁜 아이이기 때문에 빌로써 성적 학대를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도록 조종하는 것이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성적 학대를 당해서 손상된 물건이고 성적 학대시애나 유용한 존재라고 비난하므로써 피해아동의 자존감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죄책감과 자기비난에 빠지도록 유도한다. 성학대를 성교육으로 위장하는 경우는 “모든 아버지와 딸이 이런 일을 한다.” 혹은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아동에게 성교육을 한다.” 는 등의 말로써 도덕적 기준을 잘못 전달하는 예가 많다. 음란비디오를 보여준 다음에 영화 속의 장면을 연출하도록 강요하거나 성적 학대가 성교육이라고 왜곡시킨다. 애정으로 위장하는 경우는 가해자가 아동의 애정에 대한 갈망을 학대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해아동이 사랑하는 사이에서 동등한 파트너라는 신화를 갖도록 기만한다. 애정이 결핍된 아동들은 성적 학대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주된 가치는 성적인데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피해아동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성을 규정짓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아동 성학대의 두 번째 단계는 성적 접촉과 비밀 유지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적인 성적 접촉이 일어나고 가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아동에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위협하고 뇌물을 제공하기도 한다. 다음 단계는 노출기인데 성학대가 아동기에 노출되는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성인이 된 후에야 밝혀지기도 한다. 아동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어른에게 말을 하는 수도 있고 아동이 학대 결과로 나타나는 후유증을 보임으로써 노출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학대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성기 부분의 손상, 성병,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지식이나 행위 등이 학대의 표시가 된다. 일단 학대가 노출되면 억압기로 접어드는데 가해자가 폭로 이후의 수치심, 사회적 물의, 처벌 등을 우려해서 아동에게 학대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강요하게 된다. 아동의 성학대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든지 본질적으로 어른이 아동

에게 권력, 지배, 통제를 행사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욕구에 순응하도록 아동에게 강요, 폭력, 유인, 위협 등의 강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 3. 아동 성학대와 관련되는 변인

#### (1) 사회환경적 변인

아동 성학대에 관한 문헌들은 피해 아동이 자라온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고립이 중요한 사회환경적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비밀관적인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일부 연구들(Finkelhor, 1984; Trainor, 1984)은 하류층에서 아동 성학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아동 학대와 방임에 관한 발생률 조사연구(NCCAN, 1981)에 의하면 전문가 집단에 알려진 아동 성학대의 38%가 연소득 7천불 이하의 빈곤층에서 발생하는데 이 범주의 소득수준에 해당되는 미국의 가족은 전체의 17%에 해당된다고 한다. 또한 Trainor(1984)는 1980년도에 미국에서 공공부조를 받는 가족은 11.9%에 불과한데 이들 가족이 아동 성학대율에서 차지하는 비는 29.3%라고 보고한다. Finkelhor(1984)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저소득층이면서 부가 노동자 계층에 속하는 가정출신의 여대생들이 높은 성학대를 경험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임상적 연구나 보고된 성학대율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높은 성학대율을 보고하지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표본추출을 사용한 조사에서는 사회계층은 아동 성학대와 무관하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Russell(1983)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아동에 대한 성학대와 피해자가 성장해 온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Peters(1984)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거주하는 흑인과 백인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Russell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사회적 고립은 아동학대 연구자들에게 두가지 면

에서 아동학대의 위험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Sunnit과 Kryso(1978)는 성적으로 학대적인 가족들이 시골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하며 이린시절 성장지와 성학대 경험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다. 한편 아동의 신체적 학대같은 다른 유형의 아동학대에서 사회적 고립이 중요한 변수로 학대를 촉진시키는 요인임이 드러났다(Garborino & Stocking, 1980).

Finkelhor(1984)는 시골의 농장지역에서 자란 여대생들이 성학대를 경험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Russell(1983)도 농촌지역(17%)과 소도시(20%)에서 성장하는 여성들이 대도시(14%)에서 자란 여성들보다 큰 친상간을 경험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다. 반면에 Miller(1976)의 조사보고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는데 시골 농장지역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가장 낮은 성학대율(10%)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에 높은 비율이 도시에서 나타났고(15%), 도시근교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비율(19%)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성장지가 성학대에 미치는 영향은 점축성 성학대인가 비점축성 성학대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점축성 성학대는 시골보다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음란물의 유통이나 가정내로의 유입이 도시지역에서 보다 용이하며 성기노출 등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 혹은 학교 앞 등에서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가벼운 점축성 성학대인 성적 밀착이나 건드림도 대중 교통수단 내에서 일어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혼잡한 장소에서의 사람들 간의 접촉이 적은 시골보다는 도시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심한 점축성 성학대는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데 지리적 고립은 성학대 사실이 외부사람들에게 노출될 위험을 줄이므로써 초기에 발견을 어렵게 하고 가해자에게 외적 장애 요인을 없앴으로써 성적 충동을 행동에 옮기기 쉽도록 유도한다.

## (2) 가족환경적 변인과 아동성학대

선행연구들은 가족구성원, 부모의 권력관계, 부모님들 간의 갈등, 가족구성원들의 친밀도 등의 가족적 요인이 아동 성학대에 관련된 변수라고 지적한다. 아동 성학대에 관한 임상적 연구나 사회적 연구들은 어린 시절 친부모와 동기하지 않았던 여성들 중에 학대를 당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다. Finkelhor(1984)는 친어머니와 별거하는 아동들이 성학대에 훨씬 취약하며 Herman은 어머니와의 별거는 아버지와 딸의 큰친상간에 심각한 위험변수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Peters(1984)는 친아버지 없이 산 경험이 있는 소녀들이 성학대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Russell(1986)은 계부의 존재가 모든 종류의 성학대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친부와 자란 딸의 2.3%만이 친부로부터 성적 학대를 경험하는 반면 계부와 성장한 딸의 17%가 이를 경험했다고 보고한다. 또한 계부가 자행하는 학대의 유형도 성적개입이 많은 성교, 항문·구강성교 등에 집중되어 있고 친부의 경우보다 더 폭력적이라고 주장한다.

부모들 간의 권력관계가 아동 성학대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부부간의 권력관계가 심한 불균형상태를 유지할 때 아동성학대가 증대된다는 주장이다. 큰친상간가족에 대한 임상학적인 연구들은 남성가해자가 가정내에서 가장이라는 권위에 부합되는 대접을 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권위주의적이며 가족 성원을 지배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가정내에서 의사결정과 자원통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성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소극적이고 비성숙한 남편이 가족내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지배적인 아내와 결합할때 아동 성학대를 범하기가 쉽다고 지적한다.

가족성원의 친밀도도 아동성학대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동이 부모, 특히 어머니와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성학대의 중요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Finkelhor(1984)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 성학대에 취약한 여성은 어머니에게 친근하지 않고 부나 모로부터 애정을 거

의 받지 못했다고 보고한다. Peters(1984)도 어머니와 친밀하지 않은 것은 아동 성학대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수라고 지적한다. 한편 임상적 문헌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피해아동이 모친에게 느끼는 감정적 친밀도의 결여는 학대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피해 아동은 학대 사실을 비밀로 지키도록 강요되고 특히 근친상간의 경우 어머니에게 느끼는 죄책감과 분노때문에 스스로 가족으로부터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아동 성학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부모님과 좋지 못한 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학대 가정내의 부모사이에도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Gruber와 Jones(1983)는 부모사이가 좋지 못한 것이 학대당한 소녀들의 가정에서 두드러지게 표출됨을 지적한다. Finkelhor(1984)도 성학대율이 부모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거나 부모가 서로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여자 대학생들 중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다.

부모와 좋지 못한 관계를 갖거나 부모간에 적대감이 존재할때 아동에 대한 보호나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가족의 친밀도가 아동 성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방식은 아동의 감정적 혼동을 통해서이다. 아동이 불행하고 감정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욕구불만을 경험하면 아동을 추행하는데 관심있는 자에게 더욱 취약하게 되고 노출되기가 쉽다. 이들은 가해자가 제공하는 우정이나 감사, 보상 등의 표시에 쉽게 유혹당하고 자신의 권리추장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또한 이런 아동들은 자신이 부모에게 학대사실을 알리려 할 때 그 행위에 스스로 동조한 것처럼 느껴져 부모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비밀을 폭로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성원간의 친밀도의 결여는 아동성학대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측한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아동기 성학대 경험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대구시내 여자고등학생과 여자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고등학교 1학년과 여성학을 수강하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1992년 9월에 실시되었고 본조사는 1992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한 3개 여자고등학교 2학년, 각 2개 학급, 총 6학급과 대구시 소재 3개 대학에서 여성학을 수강하는 여대생에게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였다. 내용기재가 부실한 것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된 응답자수는 여고생 309명, 여대생 257명 전체 566명이다.

#### 2. 변인들의 정의 및 측정도구

##### (1) 아동 성학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아동성학대는 접촉 및 비접촉성 성학대를 포함하는 7개의 구체적 학대 행위로 구성되는데 응답자의 어린시절, 즉 만 16세 이전까지의 성학대 경험으로 정의하였다. 비접촉성 성학대는 3가지 하위항목으로 측정되었는데 만 16세 이전에 누군가 응답자에게 고의로 성적자극을 주는 말이나 놀이를 한 빈도, 음란서적, 비디오, 사진 등의 음란물을 고의로 보여준 빈도, 성기를 일부러 노출시키거나 흔들고 다니는 것을 본 빈도들이 이에 해당된다. 접촉성 성학대에는 4개의 항목이 포함되는데 만 16세 이전에 응답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1)가슴, 엉덩이, 음부를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2)키스나 성적인 애무, (3)남성의 성기나 몸을 성적으로 자극하도록 요구한 행위, (4)성교(구강, 항문성교 포함)요구 등의 행위를 한 횟수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접촉성 성학대와 비접촉성 성학대의 정도를 지수로 만들어 자료분석에 사용하기 보다는 개별적 학대행위를 분석단위로 활용하였다. 이는 접촉성 성학대를 형성하는 하위항목들 간에도 발생상황, 성적 개입의 정도, 성적 학대의 심각성 면

에서 상이한 점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가령 가슴, 엉덩이를 건드리는 성적 밀착을 성교행위와 동일시하여 취급하기 보다는 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는 것이 더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비접촉성 성학대도 각 학대가 발생하는 상황적 맥락이나 사회규범적 수용도에 있어 상이한 결과가 예상되므로 개별 변수를 분석의 단위로 삼았다.

### (2) 사회환경적 변인

사회환경적 변인으로는 어린시절 성장지와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를 조사하였다.

### (3) 가족환경적 변인

가족환경적 변인에 있어서는 가족의 구조적 환경 변인으로 성장기의 가족유형을 조사하였고 심리적 환경변인으로는 성장기 가정분위기를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가정의 화목도와 부모의 권위관계의 2가지 요인의 7개 문항을 작성, 4점 리커트척도로 물었다. 문항의 신뢰도 검증결과 가정의 화목도는 cronbach  $\alpha = .83$ , 부모의 권위관계는 cronbach  $\alpha = .78$ 로 신뢰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자료의 분석

아동기 성학대의 실태를 빈도분포, 백분율을 통해 알아보았고 관련변인들과의 관계는 교차분석과  $\chi^2$ 검증, t검증을 사용, 사회환경적 변인, 가족환경적 변인에 따라 성학대 경험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서는 요인분석과 Cronbach Alpha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아동 성학대의 빈도

<표 1>은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10대에서 20대 사이의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어린시절(16세 이하)에 경험한 접촉성 및 비접촉성 성학대의 빈도를 표시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전체 566명의 응답자중 42.4%의 여성들이 성적 자극을 주는 놀이와 언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들중 24.9%는 이를 한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린시절 음란서적, 비디오, 사진 등의 음란물에 강제로 노출되는 비접촉성 학대를 경험한 응답자도 전체의 15%에 이른다. 또한 성기를 일부러 노출시키거나 흔들고 다니는 것을 본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57.3%가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접촉성 학대중 가슴, 엉덩이, 음부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켜 접촉하는 경우를 당한 여성은 49.6%에 이르는데 이중 반정도가 이를 1회이상 경험한 것으로 보고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비접촉성 성학대에 비해 접촉성 학대는 그 심각성과 사회적 담기때문인지 무응답자의 수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전체 응답자의 15%이상이 학대 경험이 없다는 항목에 표시하는 대신 응답을 거부하는데 무응답자중 상당수가 실제로 학대를 경험했지만 보고하기를 꺼리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성학대의 정도가 심화되고 성적 개입이 많아지는 유형의 학대일수록 무응답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성적 밀착이나 건드림에 대한 무응답자 비율이 15.2%인데 비해 성교에 대한 무응답자 비율은 무려 30%에 이르고 있다. 성적 키스나 애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한 여성은 9.5%인데 무응답자 27.4%까지 합하면 36.9%나 된다. 남성의 성기나 몸을 성적적으로 자극하도록 요구를 당한 것은 전체 응답자의 6.1%에 이르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교를 경험한 것도 3.8%에 이른다.

이상에서 보고된 아동 성학대 비율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을 확률이 높다. 이 보고는 여고생과 여대생들이 어린 시절의 경험을 회고해서 답한 것이므로 실제로 그들이 경험한 학대를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성학대를 경험한 경우 아동들은 그러한 접촉이 학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여 이를 학대로 인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일부 아동들은 학대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 방어기제의 하나로서 의식적으로 기억 속에서 성학대에 대한 기억을 없애버리거나 선택적으로 기억하게 되는 자기분리를 경험하기도



〈표 1〉 아동 성학대의 빈도

N = 566

성학대 종 류	빈도	1번	2-4번	5-9번	10번 이상	없다	무응답
	성학대						
비 접 촉 성 학 대	성적 놀이 및 언어	99 (17.5)	106 (18.7)	16 (2.8)	19 (3.4)	305 (53.9)	21 (3.7)
	음란물 제공	51 (9.0)	29 (5.1)	3 (0.5)	2 (0.4)	471 (83.2)	10 (1.8)
	성기노출	113 (20.0)	173 (30.6)	22 (3.9)	16 (2.8)	223 (39.4)	19 (3.4)
접 촉 성 학 대	성적 밀착 및 건드림	145 (25.6)	119 (21.0)	9 (1.6)	8 (1.4)	199 (35.2)	86 (15.2)
	성적 키스 나 애무	36 (6.4)	10 (1.8)	1 (0.2)	6 (1.1)	358 (63.3)	155 (27.4)
	성적 자극 요구	24 (4.2)	8 (1.4)	0 (0.0)	3 (0.5)	371 (65.5)	160 (28.3)
	성교	13 (2.3)	6 (1.1)	0 (0.0)	2 (0.4)	379 (67.0)	166 (29.3)

한다. 성적학대가 실제보다 낮게 보고되는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 수치심때문인데 이는 아동 성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서비스 체계가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확대되어 나타난다. 여아가 성학대를 당할 경우 사회적으로 순결이나 정조의 상실로 인한 '손상된 물건'같은 취급을 받기가 쉬우므로 부모는 아동의 장래를 위하여 비밀을 지키려 하며 사건의 발생자체를 은폐시키려 한다. 또한 피해 아동 자신도 죄책감과 수치감에 시달리므로 이와 같은 설문조사에서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응답쪽으로 답하거나 높은 무응답율에서 나타나듯이 응답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 2. 아동 성학대의 심각성

아동 성학대의 심각성은 그 학대의 지속기간, 최초 경험연령,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관계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접촉성 성학대는 비접촉성 성학대보다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적 금기면에서 더 심각한데 〈표 2〉와 〈표 3〉이 접촉성 성학대의 지속기간과 최초 경험연령을 각각 요약하고 있다. 〈표 2〉

에서 제시하였듯이 총 195건의 성적 밀착 및 건드림 중에서 86.2%는 1달 미만 지속되었고 2개월에서 1년에 걸쳐 지속된 경우도 8.72%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성적 학대가 1년이상 지속된 경우도 5%이상으로 가벼운 접촉성 성학대도 반복하여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심한 접촉성 성학대에 해당하는 성적키스나 애무가 지속된 기간을 살펴보아도 전체 발생 건수(41건)의 20% 이상이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구나 남성의 성기나 몸을 성적으로 자극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도 전체의 30%를 넘어서고 있어서 아동 성학대가 반복적, 지속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구강, 항문, 질에 의한 성교를 경험한 응답자 중 이를 2개월 이상 겪은 경우가 전체의 32%수준에 이른다. 성적 개입이 많은 접촉성 성학대일수록 전체 학대 발생율에 비해 장기적인 학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아동 성학대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단적으로 지적해 준다.

접촉성 성학대의 최초 경험연령을 5세 이하, 5

〈표 2〉 접촉성 성학대의 지속기간

N = 566

지속기간 성학대	1달 미만	2개월-1년	1년-3년	3년-5년	5년 이상	계
성적 밀착 및 건드림	168 (86.2)	17 (8.72)	5 (2.56)	3 (1.54)	2 (1.03)	195 (100.0)
성적 키스 나 애무	33 (80.5)	5 (12.2)	2 (4.88)	0	1 (2.44)	41 (100.0)
성적 자극 요구	18 (69.2)	7 (26.9)	0	0	1 (3.85)	26 (100.0)
성교	17 (68.0)	6 (24.0)	1 (4.0)	0	1 (4.0)	25 (100.0)

〈표 3〉 접촉성 성학대와 최초 경험 연령

연령 성학대	5세 이하	5-10 세	11-16세	계
성적 밀착 및 건드림	4 (1.76)	50 (22.0)	173 (76.2)	227 (100.0)
성적 키스나 애무	4 (10.8)	13 (35.1)	20 (54.1)	37 (100.0)
성적 자극 요구	2 (7.69)	15 (57.7)	9 (34.6)	26 (100.0)
성교	3 (16.7)	8 (44.4)	7 (38.9)	18 (100.0)

세-10세, 11세-16세라는 세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도 아동 성학대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성적 밀착이나 건드림을 최초로 경험한 227명의 응답자중 76.2%에 해당하는 173명이 이를 11세에서 16세 사이에 경험하였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22%에 해당하는 50명은 5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 나이에 성적 학대를 경험했으며 5세 이하에 이를 경험했다고 보고한 경우도 4건(1.76%)이나 된다. 성적 키스나 애무를 10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 경험한 경우도 전체 사건 발생건수의 46%에 해당되는데 이는 연령에 상관없이 아동들이 성적 개입이 많은 접촉성 성학대에 희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해자의 성기나 몸을 성적으로 자극하도록 하는 학대행위에 노출된 26명의 아동중 65% 이상이 10세 미만에 이를 경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성교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한 18명의 응답자중 이를 5세 이하에 경험한 것으로 보고한 경우는 16.7%이며 5세에서 10세 사이에 경험한 경우는 44.4%이며 11세에서 16세 사이는 38.9%에 해당한다. 10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행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행위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데 어린 아동들은 자기방어능력이나 가해자의 의사를 거부할 표현능력조차 부족하다는 사실을 고려해볼때 그 심각성은 가중된다고 본다.

아동 성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측면을 제공한다. 가해자가 나이가 많은 형제자매·부모·친척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아동과 빈번한 접촉관계를 유지하는 입장에 있을때 성적 학대의 정도가 점진적으로 더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고 그 학대의 지속

〈표 4〉 비접촉성 성학대의 가해자

가해자 성학대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과 선생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성적놀이 및 언어	34 (19.8)	44 (25.6)	33 (19.2)	17 (9.88)	44 (25.6)
음란물 제공	7 (8.3)	53 (63.1)	8 (9.52)	12 (14.3)	9 (4.77)
성기노출	6 (2.2)	4 (1.48)	5 (1.85)	6 (2.21)	250 (92.3)

〈표 5〉 접촉성 성학대의 가해자

가해자 성학대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과 선생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성적밀착 및 건드림	33 (11.5)	11 (3.8)	30 (10.5)	11 (3.8)	202 (70.4)
성적 키스나 애무	11 (22.4)	10 (20.4)	7 (14.7)	11 (22.4)	10 (20.4)
성적 자극 요구	15 (41.7)	5 (13.9)	7 (19.4)	4 (11.1)	5 (13.9)
성교	5 (20.0)	5 (20.0)	7 (28.0)	2 (8.0)	6 (24.0)

기간도 장기화되기 쉽다.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은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고통과 학대에서 규범적인 혼동과 정신적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표 4〉는 비접촉성 성학대의 가해자를 요약한 것인데 성적 놀이 및 언어를 사용하거나 사진, 그림, 비디오 등의 음란물을 고의로 아동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모르는 사람보다는 피해아동이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성적 놀이 및 언어의 경우 모르는 사람에 의해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는 25.6%에 불과하고 가족, 친척, 친구, 이웃과 선생님 등의 아동에게 1차적 준거집단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무려 66%나 된다. 음란물 제공은 피해아동의 친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63.1%나 되며 모르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는 5%미만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기노출은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지배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92.3%에 이르고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경우도 2.2% 정도 된다.

접촉성 성학대의 가해자는 〈표 5〉에서 제시되고 있다. 성적 밀착이나 건드림은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70.4%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런 유형의 학대가 주로 버스나 다른 대중교통수단내에서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성적 건드림은 일반적으로 장기화되기 쉬운데 11.5%가 이에 해당하며 이웃과 선생님이 가해자인 경우도 10.5%에 이른다. 특히 교사가 가해자일 경우 사제 간에 존재하는 권력관계 때문에 아동은 학대행위를 거절하거나 저항하기가 무척 어려운 반면 학교생활을 통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잦은 접촉이 이루어지므로 피해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성적 키스나 애무의 가해자는 80% 이상이 피해아

(표 6) 사회 경제적 지위와 아동 성학대 경험 유무

사회 경제적 지위 성학대	경험	상	중	하	$\chi^2$
성적 놀이 및 언어	유	36 (43.9)	123 (39.2)	81 (55.5)	10.75**
	무	46 (56.1)	191 (60.8)	65 (44.5)	
음란물 제공	유	4 (4.8)	56 (17.4)	24 (16.1)	8.25**
	무	79 (95.2)	266 (82.6)	125 (83.9)	
성기 노출	유	40 (48.2)	202 (63.9)	81 (55.5)	7.92**
	무	43 (51.8)	114 (36.1)	65 (44.5)	
성적 밀착 및 건드림	유	40 (57.1)	152 (54.9)	87 (66.9)	5.35
	무	30 (42.9)	125 (45.1)	43 (33.1)	
성적 키스 나 애무	유	11 (17.7)	24 (9.6)	18 (18.4)	6.23**
	무	51 (82.3)	225 (90.4)	80 (81.6)	
성적 자극 요구	유	4 (6.8)	16 (6.5)	15 (15.5)	7.47**
	무	55 (93.2)	232 (93.5)	82 (84.5)	
성교	유	2 (3.5)	11 (4.5)	8 (8.5)	2.66**
	무	55 (96.5)	236 (95.5)	86 (91.5)	

동에게 신분이 알려진 사람인데 이중 가족과 친척이 22.4%, 친구가 20.4%, 이웃과 선생님이 14.3%, 그냥 아는 사람이 22.4%를 차지한다. 비접촉성 성학대나 가까운 접촉성 성학대가 주로 모르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수가 많은 반면 성적 개입이 많은 접촉성 성학대일수록 아는 사람이 가해자로 드러난다. 성적 자극을 요구한 경우에도 가족과 친척에 의한 학대행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무려 41.7%를 차지한다. 또한 성교를 요구한 경우도 이웃과 선생님이

가해자인 경우가 28%로 가장 높고 다음이 가족과 친척에 의한 경우가 20%며 친구가 가해자인 경우도 같은 비율인 20%를 차지한다. 정도가 심한 성학대의 가해자가 낯선 사람이 아닌 아동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쳐야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점은 그 심각성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7〉 성장지와 아동 성학대 경험 유무

성장지 성학대	경험	대도시	중소도시	시골	$\chi^2$
성적 놀이 및 언어	유	166 (42.3)	34 (57.6)	39 (44.8)	4.86
	무	226 (57.7)	25 (42.4)	48 (55.2)	
음란물 제공	유	65 (16.2)	8 (13.8)	11 (12.2)	1.02
	무	336 (83.8)	50 (86.2)	79 (87.8)	
성기 노출	유	248 (63.1)	35 (58.3)	40 (46.0)	8.75**
	무	145 (36.9)	25 (41.7)	47 (54.0)	
성적 밀착 및 건드림	유	212 (59.7)	32 (62.7)	35 (51.5)	1.96
	무	143 (40.3)	19 (37.3)	33 (48.5)	
성적키스나 애무	유	41 (13.2)	8 (19.5)	4 (7.5)	2.92
	무	269 (86.8)	33 (80.5)	49 (92.5)	
성적 자극 요구	유	22 (7.3)	3 (7.3)	10 (18.2)	7.06**
	무	281 (92.7)	38 (92.7)	45 (81.8)	
성교	유	16 (5.3)	1 (2.5)	4 (7.5)	1.15
	무	284 (94.7)	39 (97.5)	49 (92.5)	

3. 사회환경적 변인과 아동성학대

아동성학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환경적 변인으로 대표적인 것이 사회경제적 지위라고 볼 수 있는데 〈표 6〉에서 비접촉성 및 접촉성 성학대의 경험유무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교차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린 시절 자라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류층인 경우에 비접촉성 성학

대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놀이 및 언어를 사용한 학대의 경우 하류층에서 가장 높게(55.5%)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상류층이 높게 나타난다(43.9%). 중류층에서 성장한 아동이 성적 놀이 및 언어에 노출되는 비율은 가장 낮는데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그림 등의 음란물을 제공하는 학대 행위에서는 중류층이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하류층도 비슷한 수치인 16.1%를 나타내 4.8%에 해

〈표 8〉 가족구조와 아동 성학대 경험 유무

성학대 \ 유형	경험	친부모	결혼 가정	$\chi^2$
성적 놀이 및 언어	유	222 (42.6)	17 (77.3)	10.29**
	무	299 (57.4)	5 (22.7)	
음란물 제공	유	79 (14.9)	5 (20.0)	.476
	무	450 (85.1)	20 (80.0)	
성기노출	유	307 (59.0)	17 (68.0)	.795
	무	213 (41.0)	8 (32.0)	
성적 밀착 및 건드림	유	265 (57.7)	15 (75.0)	2.35
	무	194 (42.3)	5 (25.0)	
성적 키스나 애무	유	48 (12.2)	5 (29.4)	4.26**
	무	344 (87.8)	12 (70.6)	
성적 자극 요구	유	31 (8.0)	4 (25.0)	5.62**
	무	357 (92.0)	12 (75.0)	
성교	유	17 (4.5)	4 (25.0)	12.98**
	무	365 (95.5)	12 (75.0)	

당하는 상류층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집착성 성학대를 살펴보면 성적 밀착이나 건드림은 상류층과 하류층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성적 키스나 애무도 하류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18.4%) 중류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9.6%).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가해자의 성기나 몸을 자극하도록 요구하는 학대유형에서도 하류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15.5%) 중류층에서 가장 낮

게 나타나서 앞서 설명한 학대 유형과 비슷한 유형을 나타낸다. 성교는 하류층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외래 아동의 성장지와 그들의 성학대 경험 유무와의 관계를 보면(표 7), 성적 놀이 및 언어는 중소도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57.6%) 음란물 제공은 대도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16.2%)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성

〈표 9〉 가족환경적 변인과 비접촉성학대

가족의 심리적환경 성학대	가족의 화목도				가족의 권위관계			
	경험	평균	표준편차	t	경험	평균	표준편차	t
성적 높이 및 언어	유	15.10	2.91	-5.24**	유	4.99	1.43	-1.69
	무	16.31	2.41		무	5.21	1.42	
음란물 제공	유	15.21	2.88	-2.06**	유	4.93	1.44	-1.28
	무	15.88	2.67		무	5.14	1.40	
성기노출	유	15.49	2.85	-2.90**	유	5.11	1.39	.01
	무	16.19	2.52		무	5.11	1.45	

\*p < .05 \*\*p < 0.1

기노출의 경우는 대도시에서 가장 높게(63.1%) 발생하며 그 다음이 중소도시이며(58.3%) 시골지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46.0%)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비접촉성 성학대중 음란물 제공과 성기노출은 본 연구 가설에서 제시한 대로 대도시 지역에서 읍면지역에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적 밀착 및 건드림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시골에서 성장한 아동보다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성적 키스나 애무도 중·소도시, 대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높은 발생율을 나타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수준에 못미친다. 성적 자극 요구는 시골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다른 지역에서 성장한 아동보다 훨씬 높은 경험율을 보이는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성교도 읍면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7.5%) 이어 대도시에서(5.3%) 발생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 4. 가족환경적 변인과 아동 성학대

어린시절 친부모와 성장하였는지 혹은 계부, 계모로 재구성된 가족, 조부모, 친척집 혹은 고아원등에서 자랐는지에 따라 아동 성학대의 경험유무가 달라진다는 것이 드러났다. 〈표 8〉에서 제시하듯이 결손 가족이나 고아원에서 자란 아동들이 친부모와 자란 아동들보다 본 연구에 포함된 세가지 유형의 비접촉성 성학대 모두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성적 놀이 및 언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결손 가정이나 고아원에서 성장한 아동의 경우 77.3%가 이를 경험했다고 보고한 반면 친부모와 동거한 자녀의 경우 42.6%가 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한다.

접촉성 성학대의 경우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데 친부모의 부재는 아동 성학대를 촉진시키는 요인임을 지적해 주고 있다. 결손 가정이나 고아원 출신의 아동의 29.4%가 어린시절 성적 키스나 애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친부모와 동거한 자녀는 12.2%만이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

(표 10)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접촉 성학대

가족의 심리적 환경 성학대	가족의 화목도				가족의 권위관계			
	경험	평균	평균편차	t	경험	평균	표준편차	t
성적밀착 및 건드림	유	15.29	2.85	-3.79**	유	5.02	1.39	-1.34
	무	16.24	2.46		무	5.19	1.39	
성적 키스나 애무	유	14.57	2.92	-3.63**	유	5.08	1.41	-.27
	무	16.0	2.64		무	5.13	1.37	
성적 자극 요구	유	14.4	3.23	-3.42**	유	4.68	1.45	-1.91
	무	16.0	2.58		무	5.15	1.37	
성교	유	12.95	4.09	-5.09**	유	4.58	1.50	-1.76
	무	16.0	2.49		무	5.15	1.36	

른의 몸이나 성기를 자극하도록 요구되는 학대행위에서도 결손가정이나 고아원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이를 경험할 확률이 25%로 정상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의 8%에 비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런 나이에 성교를 요구당하는 경험에 있어서도 결손가정이나 고아원 출신 아동들이 훨씬 더 취약하여 이를 경험하는 비율이(25%) 정상가정에서 성장한 아동들의 경우(4.5%)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친부모와 동거하는 아동들이 부모의 보호와 통제 하에서 접촉성 아동 성학대에 적게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부재와 아동 성학대 간에 나타나는 긍정적 관계는 성적 놀이와 언어의 사용같은 비접촉성 성학대에도 적용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접촉성 성학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친부모의 부재나 계부의 존재가 여아

의 성학대를 증가시킨다는 서구에서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 9>는 성장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비접촉성 성학대의 유무에 따라 t-test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가족의 화목도가 높은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일수록 성적 놀이 및 언어의 사용같은 학대에 노출될 확률이 낮게 나타난다. 성적 놀이 및 언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아동의 가정 화목도는 평균점이 15.10인 반면 이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아동의 경우 이보다 높은 점수인 16.31을 나타낸다. 음란물 제공같은 학대 유형에서도 아동이 성장한 가정의 화목도는 성학대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의 가정화목도의 평균점수(15.21)는 그런 경험이 없는 아동의 평균점수(15.88)보다 낮게 나타난다.

또한 성기노출의 경우도 학대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에는 가정화목도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성기노출을 본 적이 없는 아동의 가정화목도 점수가(16.19) 그런 경험이 있는 아동의 가정 화목도 점수(15.49)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이 성장한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하고 가족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할 때 비접촉성 성학대에 노출되는 경험이 적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가족의 권위관계가 성적 놀이 및 언어 사용, 음란물 제공, 성기노출 등의 비접촉성 성학대경험과 갖는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족의 화목도는 비접촉성 성학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접촉성 성학대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이 밝혀졌다. <표 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적 밀착이나 건드림을 경험한 적이 없는 아동의 가정 화목도 평균 점수(16.24)가 이를 경험한 아동의 점수보다(15.29) 높게 나타난다. 또한 성적 키스나 애무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보고한 아동의 가정 화목도 점수(16.0)가 이런 유형의 학대를 보고한 아동의 점수(14.57)보다 높다. 이는 가정의 화목도가 높고 가족성원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아동의 성학대경험이 감소될 수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화목도가 높을수록 아동이 성인의 몸이나 성기를 성적으로 자극하도록 요구되는 학대에 적게 노출된다. 성적 자극 요구의 무경험 집단의 가족화목도 평균점은 16.0이고 유경험 집단은 14.4이다. 가족 화목도가 높은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이 성교를 경험하는 비율도 화목도가 낮은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가족의 권위관계는 접촉성 성학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이 드러났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에 대한 성학대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학술적인 체계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을 인식하고 대구지역에서의 아동 성학대의 실태 및 원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지역에서 조사된 아동 성학대 발생율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사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비접촉성 성학대가 접촉성 성학대보다 더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566명의 응답자중 성기노출은 57.3%, 성적 자극을 주는 말이나 놀이는 42.4%, 음란물에 대한 강제적인 노출은 전체 응답자의 15%가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벼운 접촉성 성학대인 성적 밀착이나 건드림을 경험한 경우도 50%에 이르며 이중 반 정도가 이를 1회 이상 경험한 것으로 보고한다. 성적 키스나 애무, 남성의 성기나 몸을 성적으로 자극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성교 등의 심한 접촉성 성학대를 경험한 경우도 전체의 19.4%나 된다. 이러한 보고율은 한국형사정책 연구소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1984)에서 밝힌 6.5%의 아동 성학대율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다. 또한 이는 한국여성개발원(1992)에서 전국의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집계한 아동성학대 통계치(2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높은 아동 성학대율도 실제보다는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심한 접촉성 성학대 문항에서 무응답율이 27.4%에서 29.3%나 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금기시하는 심한 접촉성 성학대에 대한 무응답율을 감소시키고 성학대에 대한 보고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 성학대의 지속기간, 최초경험연령,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통해서 분석해 본 대구지역의 아동 성학대는 심각한 양상을 표출하고 있다. 심한 접촉성 성학대의 경우 학대의 지속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고 10세 이전의 어린 나이에 이를 최초로 경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아동 성학대의 가해자도 대부분이 아동에게 신분이 알려지고 아동과 일상생활 속에서 접촉이 많은 사람들로 밝혀졌다. 특히 심한 접촉성 성학대는 아동과 가장 접촉이 빈번하고 아동에게 가까운 가족·친척·친구·선생님·이웃 등에 의해 자행된다. 이렇게 성학대가 아동들이 직접적으로 의존하며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행

해질때 피해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또한 성학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아동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그들을 돌보는 입장에 있는 가족·친척·선생님등이 가해자일 경우는 이에 대한 조기발견과 예방조치도 취할 수 없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세째, 아동이 성장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 성학대의 경험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것이 밝혀졌는데 심한 접촉성 성학대는 하류층에서 성장한 아동들에게 더 나타나며 음란물 제공이나 성기노출은 중류층과 하류층에서 성장한 아동들에게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어린 시절의 성장지도 아동 성학대의 사회환경적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성기노출과 가해자의 몸이나 성기를 자극하도록 유도하는 학대행위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밝혀졌다. 대도시에서 성장한 아동이 성기노출을 경험할 확률은 중소도시나 시골에서 성장한 아동보다 훨씬 높고 성적 자극에 대한 요구는 시골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다.

네째, 가족구성원이 아동 성학대에 미치는 영향은 비접촉성 성학대보다 접촉성 성학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심한 접촉성 성학대인 성적 키스나 애무, 성적자극 요구, 성교 등은 친부모와 동거하는 정상가족보다는 재혼가족, 결혼가족, 고아원 등에서 성장한 아동에게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비접촉성 성학대의 경우는 성적 놀이 및 언어의 사용 면에서만 가구구성원이 유의미한 변수로 밝혀졌는데 친부모의 부재는 아동 성학대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섯째, 가족의 화목도는 비접촉성 성학대와 접촉성 성학대의 모든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드러났다. 가정의 화목도가 높은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은 성적 놀이 및 언어, 음란물 제공, 성기노출 등을 경험할 확률이 화목하지 못한 가정 출신의 아동보다 훨씬 낮다. 이들은 또한 성적 밀착이나 건드림, 성적 키스나 애무, 성적 자극 요구, 성교 등의 접촉성 학대에 피해자가 될 확률도 낮다. 그러나 가족의 권위관계는 비접촉성 성학대와 접촉성 성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학대 상담소에 접수되거나 아동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파악된 사례만이 아닌 일반 여고생들과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성학대의 원인에 관련된 변수들을 파악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성학대 경험율이 특히 심각한 유형에 있어서는 낮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설문지응답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남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금기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드러냄으로써만이 예방과 아동보호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 사회적으로 보다 개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응답자가 좀더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또 하나의 제한점은 대구지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표본이 국한된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는 보다 광범위한 연령층에 걸쳐 여러지역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으며 질적 심층연구도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광영숙, 홍강의 (1991).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정신건강연구 6:37-52.
- 2) 이종복 (1991). 청소년의 성적 학대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6:129-147.
- 3) 정동철외 5명 (1990). 아동의 성폭행 실태와 과제. 제4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자료집.
- 4) 한국여성개발원 (1992).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 5) 한국 성폭력 상담소 (1991). 어린이 성폭행 세미나 자료집.
- 6)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7) Bagley, Christopher and King, Kathleen (1990). Child Sexual Abuse : The Search for Healing. London: Tavistock/Routledge.
- 8) Burgess, Robert and Garbarino, James (1983).

- Doing what comes naturally? An evolutionary perspective on child abuse. In David Finkelhor et al. (eds.) *The Dark Side of Families: Current Family Violence Research*.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9) Conte, Jon (1991), *Child sexual abuse: Looking backward and forward*. In Michael Patton (ed.) *Family Sexual Abuse: Frontline Research and Evaluation*.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10) Driver, Emily and Droisen, Audrey (eds.) (1989). *Child Sexual Abuse: A Feminist Reader*. Washington Square: New York University Press.
  - 11) Finkelhor, David (1984). *Child Sexual Abuse: New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Free Press.
  - 12) Finkelhor, David and Baron, Larry (1986). High-risk Children. In David Finkelhor and Associates (eds.) *A Sourcebook on Child Sexual Abuse*.
  - 13) Fromuth, M.E. (1983). *The Long Term Psychological Impact of Childhood Sexual Ab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uburn University.
  - 14) Gaborino, J. and Stocking, S.H. (1980). *Protecting Children from Abuse and Neglect*. San Francisco: Jossey-Bass.
  - 15) Glaser, Danya and Frosh, Stephen (1988). *Child Sexual Abuse*. London: Macmillan Education LTD.
  - 16) Herman, J. (1981). *Father-Daughter Inces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17) Miller, P. (1976). *Blaming the Victims of Child Molestation: An Empirical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 18)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NCCAN). (1981). *Study Findings: National Study of Incidence and Severity of Child Abuse and Neglec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 19) Peters, S.D. (1984).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Sexual Victimization and Adult Depression among Afro-American and White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 20) Russell, Diana (1983). The incidence and prevalence of intrafamilial sexual abuse of female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7:133-146.
  - 21) Saphira, Miriam (1987). *For Your Child's Sake: Understanding Sexual Abuse*. Auckland: Heinemann Reed.
  - 22) Schechter, M. and Roberge, L. (1976). *Child Sexual Abuse* In R. Helfer and C. Kempe (eds.) *Child Abuse and Neglect: The Family and the Community*. Cambridge: Mass., Ballinger.
  - 23) Trainor, C. (1984). *Sexual maltreatment in the United States: A five-year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Child Abuse and Neglect, Montreal.
  - 24) Women's Research Center (1989). *Recollecting Our Lives: Women's Experience of Childhood Sexual Abuse*. Vancouver: Press Gang Publishers.